

관계절 구조에 대한 연구

한 재 현*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관계절의 유형론적인 대조 |
| II. 종속절로서의 관계절 | V.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 |
| III. 제한적 및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 | VI. 결 론 |

I. 서 론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문장기능을 하는 종속절이 내포되는 현상을 모든 자연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종속절 중에서 관계절로 하위분류되는 구조가 갖는 수식기능을 중심으로 통사적인 구조와 유형(type)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조명하고 또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영어의 예문이며 그 외의 언어에서 밝혀진 현상은 결과만을 소개하겠다.

영어를 자료로 하는 연구는 여러가지 틀(framework)을 사용하여 많이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그 통사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할 구절구조 규칙등이 아직은 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어의 관계절에 대한 구절구조 규칙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

II. 종속절로서의 관계절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종속절이 있다. 이 종속절이 속해있는 문장안에서 명사구가 수행하는 주어, 목적어등이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 종속절을 기능에 따라 분석해서 그 부류를 차례로 소개하겠다.

*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상위 문장에 내포되는 종속절의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를 중심으로 시제가 있는 유한절(finite clause)과 시제가 없는 비유한절(nonfinite clause)로 분류한다. 이들을 다시 하위분류해서 각각의 구조를 소개한다.

1. 비유한절

비유한절이 문장안에서 가지는 여러가지 기능에 따라 하위분류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기술을 한정해야 하겠기에 상위절 뒤의 보문화(complementation)에만 관심을 갖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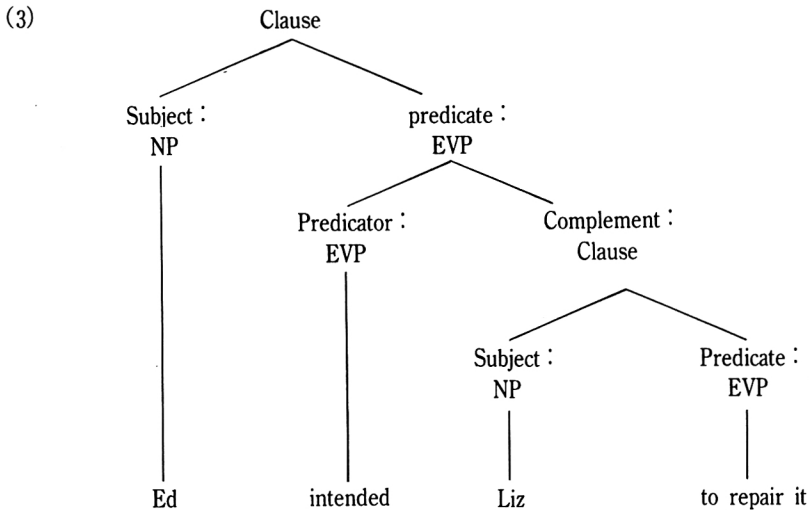
Huddleston(1974 : 210)은 시제없는 동사구(tenseless VP)가 상위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를 아래 (1)과 같이 네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 | | |
|---------------------------------|-------------------|
| (1) a. [Ed hoped] to repair it | I base kind, +to |
| b. [Ed helped] repair it | II base kind, -to |
| c. [Ed remembered] repairing it | III -ing kind |
| d. [It got] repaired | IV -en kind |

시제없는 VP가 그 자체의 주어인 NP를 앞세우고 상위동사의 보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문은 아래 (2)와 같다.

- | | |
|-------------------------------------|-------------------|
| (2) a. Ed intended Liz to repair it | I base kind, +to |
| b. Ed let Liz repair it | II base kind, -to |
| c. Ed remembered Liz repairing it | III -ing kind |
| d. Ed had it repaired by Liz | IV -en kind |

위 (2a)의 구조를 수형으로 보이면 (3)과 같다.



상위절의 본동사(main verb)의 속성에 따라 그 동사 뒤에 오는 NP가 상위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동사로는 persuade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예문은 여러 논문에서 많이 논의 되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줄인다.

그런데 위 예문 (1)과 (2)에서 보듯이 비유한절은 네종류로서 상위동사 뒤에 오는 형태로 base kind+to, base kind -to, -ing kind, -en kind이다. 이 넷중 어느 것을 상위동사 다음의 보어절로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상위동사의 속성(property)에 따라 결정된다.

2. 유한절

유한종속절(finite subordinate clause)도 상위동사의 보문으로 기능을 한다. 이 유한절을 절유형 (clause type)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4)와 같다.

- | | |
|---|---------------|
| (4) a. [She assumed] that he was right | Declarative |
| b. [She asked] who I was | Interrogative |
| c. [She remembered] what a struggle it had been | Exclamative |
| d. [She demanded] that he be told | Jussive |

상위동사가 보문으로 내용절(content clause)을 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문의 종류를 분류할 수도 있지만, 네유형의 절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예가 위의 (4)이다. 상위동사 assume 이나 believe등은 평서문을, inquire는 의문절을, ask는 의문절이나 명령절(jussive)를, remember등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등 모두를 보어로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위동사의 보어로 오는 절의 부류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유한종속절(finite subordinate clause)이 문장안에서 나타내는 여러가지 기능을 검토해 본다.

전통적으로 유한종속절은 이들이 문장의 한 성분으로 하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대별하고 있다. 아래 (5)가 그 예이다.

- (5) a. That he was a charlatan [was now undeniable]
 b. [The man] who came to dinner [stole the silver]
 c. [He stayed behind] because he couldn't speak French

(5)의 a에서 종속절은 명사절로 주어의 기능을, b에서 종속절은 the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c에서 종속절은 부사절로 부가어(adjunct)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절을 기능과 부류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네개의 주요 부류도 대별된다.

첫째는 관계절로서 구조상 주절과 차이가 있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절은 관계사(wh-words : who, whom, which 등) 중에서 어느 하나를 내포하고 있다. (6.a)는 who, (6.b)는 which를 포함하고 있다.

- (6) a. [The man] who came to dinner [stole the silver]
 b. [They found the weapon] with which he had shot her

두번째는 비교절(comparative clauses)로서 주절과는 달리 구조상 불완전하다. 주절과 이 불완전한 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탈락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7a)에서 삭제된 부분은 so many strikes요, (7b)에서는 so old라는 것을 구조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7) a. [There have been far more strikes this year] than there were last year
 b. [He's about as old] as I am

세번째 유형은 because, before등과 같은 접속사로 소개되는 절로서 주절과 종속절을 분리해 놓고 볼 때 구조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종속절은 종속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다.

- (8) a. [He stayed behind] because he couldn't speak French
 b. [I left] before the meeting was over

마지막 네번째 유형은 내용절(content clauses)로서 때로는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등 다른 기능도

하지만 주로 무표성의 평서문 유형(unmarked declarative type)으로 문장중에 나타난다. that나 whether가 절의 앞에 나타나 그 기능을 예견케 해준다. (9a)의 that는 이절이 평서문임을, (9b)의 whether는 이 절이 의문문임을 밝혀준다. 또 (9b)의 본동사 wonder의 자질이 종속절의 종류가 의문문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 (9) a. That he was a charlatan [was now undeniable]
 b. [I wonder] whether he'll win

지금까지는 Huddleston(1984 : 387~390)의 요약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종속절 중에서 관계절만을 제한해서 이 절의 구조와 기능등을 연구하는 것이 중심과제다. 따라서 3장 이하에서는 이 관계절에 국한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I. 제한적 및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

1. 관계사와 접속사 that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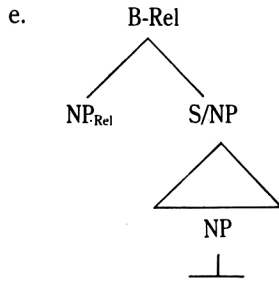
유한절이 상위문에 내포되어 하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앞서 분류했다. 이러한 절의 통사적인 내적 구조는 관계절을 제외하고 다른 절은 정상적인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관계절은 구조가 완전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관계절의 통사적 구조를 살펴보자.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사(wh-words)는 그 절의 맨 앞에 위치하거나 탈락된다. 이 관계절의 구조는 여타 종속절과는 달리 구조상 결함이 있다. 이 결함이 되는 구조의 기능이 관계절 맨 앞에 위치한 관계사와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 Baker(1989 : 234-235)는 관계사의 속성에 따라 관계절을 세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¹⁾

첫째로 wh-words가 이끄는 유형이다.

- (10) a. who(m) Fred voted for
 b. which Karen submitted
 c. whose dog you fed
 d. who exposed the fr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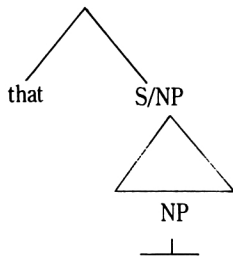
1) /X/P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로 /다음에 표시된 요소가 공백화되어 있다는 표시다. 예를 들어 S/NP는 NP가 하나 부족한 S(문장)라는 의미다.



(10e)의 수형을 보면 NP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 발견된다. 그 삭제된 NP의 의미상의 기능을 관계사 NP가 대신한다. 이렇게 삭제된 NP의 통사적 기능을 보면 a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b에서는 동사의 목적어, c에서는 머리어(head)와 관계사가 한 구조를 이루어 동사의 목적어, d에서는 주어로서 각각의 기능을 관계사 NP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번째 그룹으로 *that*로 유도되는 절이다. 전통적으로 이 *that*를 관계대명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변형문법의 틀에서는 이 *that*는 관계사라기 보다 접속사로 본다.²⁾

- (11) a. *that* Smith recommended
 b. *that* Henry keeps his money in
 c. *that* voted for Bill
 d. B-R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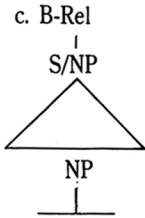


(11)에서 보듯이 삭제된 NP는 예문의 차례대로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주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셋째, 그룹은 관계사가 없는(bare relative) 문장이다. 관계사가 없고 또 삭제된 NP가 주어진 경우는 (13b)처럼 비문이 된다.

2) *that*가 접속사라는 논증은 추후에 소개하겠다.

- (12) a. _____ Jason caused
 b. _____ you told us about



- (13) a. The journalists [who _____ exposed the fraud] are being sued.
 b. *The journalists [_____ exposed the fraud] are being sued.

(12)에서 a와 b는 각각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삭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계사까지도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13b)에서 보듯이 주어가 삭제된 구문에 관계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위의 세 부류중 두번째로 소개할 내용으로 that를 관계사(wh-words)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반대의견이 있다. 즉 that가 관계사가 아니고 접속사라는 주장이다. 그 증거로 중세영어에 관계사가 that와 함께 연속적으로 출현한 문장이 있어서 통시적인 증거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논증으로 Huddleston(1984 : 397~398)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증거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that로 인도되는 관계절이 전치사의 보어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관계절을 유도하는 that 앞에 못온다. 따라서 (14a)에서 전치사 on이 관계절 뒤에 남겨져(stranded) 있어서 좋은 문장이지만 (14b)에서는 on이 관계절을 이끄는 that앞에 위치해 있어서 비문이 되었다.

- (14) a. [the chair] that he was standing on.
 b. *[the chair] on that he was standing.

둘째로 관계절의 that는 내용절의 that처럼 특정조건하에서만 생략이 가능하다. 특정조건이란 (13b)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주어가 삭제된 문장에서는 내용절에서와는 달리 that가 생략될 수 없다.

- (15) a. [The book] (that) he had recommended [were unobtainable]
 b. [One had to admire the way] (that) he handled the crisis.
 c. [He said] (that) he was ill.

문장 (15)의 a에서 that는 생략되건 안되건 좋은 문장이다. b에서도 that는 부사로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c는 관계절이 아니고 내용절이다. 그렇지만 a와 b에서 처럼 접속사 that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의 a와 b에서 that로 유도되는 절은 불완전하지만 c에서는 that로 유도되는 절은 완전하다. 그런 점에서 that를 관계사로 분류하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접속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세번째로 내용절(content clause)과 관련해서 볼 때 that는 한정구조 (finite construction)에만 국한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관계어(wh-words)로 시작되는 관계절은 한정구조와 비한정구조의 제한이 없이 사용된다.

- (16) a. *[He was looking for a box] that to store the letters in.
 b. [He was looking for a box] which to store the letter in.
 c. [He was looking for a box] in which to store the letter.

(16)의 a, b, c 세문장은 모두 비한정구조의 보문을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 b와 c의 보문은 관계어(wh-word)로 시작되어서 좋은 문장인데 a는 that로 유도되어 있어서 비문이다. 따라서 that와 관계어 간의 기능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that를 관계사가 아닌 접속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 세가지를 제시했다. 따라서 관계절을 이끄는 that도 관계사가 아닌 접속사로 분석하기도 한다.

2. 제한적 및 비제한적 관계절의 용법의 차이

관계절에는 수많은 상이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어느 범주까지를 이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견해차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절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류의 것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여러 종류의 관계절 문장의 기능중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제한적 및 비제한적 관계절용법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첫째로 이 두 용법간에는 음운론과 철자법(orthography)에서 차이가 있다. 비제한(non-restrictive) 관계절은 분리된 억양곡선(intonation contour)을 취하면서 읽힌다. 즉 관계절 부분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운율적으로 단절된다. 반면에 제한관계절은 그 선행사에 운율적으로 결속된다. 글로 쓰면 비제한 관계절은 구두점(comma)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다. 두 용법의 차이를 아래 문장에서 비교해 보자.

- (17) a. He admires Mrs. Brown, which I found strange.
 b. *He admires Mrs. Brown which I found strarge.
 c. She had three sons, who were still at school.

위의 a에서 *which*의 선행사는 앞절 전체로서 비제한적 용법이다. 만일 구두점이 없다면 제한적 용법의 문장 b와 같게 되는데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Mrs. Brown이 되어 선행사와 관계사가 일치하지 않는 비문이 된다. c에서 구두점이 없다면 제한적 관계절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미론적 차이점을 고찰해 보자. 우선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주제적(thematic) 의미의 구별이다. 비제한 구조에서는 관계절에 들어있는 정보가 상위절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있는 정보와는 분리되어 있고 상위절의 나머지 부분에 내재한 정보와는 제이차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반면에 제한 구조에서는 관계절에 포함된 정보가 전체 절이 전달하는 내용중에 절대 필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18) a. She was wearing a dress that I'd never seen before.

b. She was wearing a pretty gown of cream silk, which I had never seen before.

위의 a는 제한적 관계절이다. a에서 그녀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언급해야 할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일이다. 꼭 언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전에 본일이 없는 옷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b에서는 관계절의 선행사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서 상위절을 독립적이지요 충분한 정보로 나타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

세번째로 두가지 용법에서 통사적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 차이점을 포착하기 위해 각 관계절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구조의 범위와 관계절 자체의 형태를 살펴보자.

㉑ 제한적 관계형은 NP구조내에서만 수식어로 기능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형은 아주 넓은 범위의 구조에 나타난다.

(19) a. *John died the following year, which made Max the sole heir.*

b. She considered him *incompetent, which* indeed he was.

c. *Liz, who* knows him well, says he intends to resign.

(20) a. **Nobody, who* knows her, could believe her capable of such an act.

b. *I want *Liz who* works for Tom.

비제한적 관계절에서 관계사의 선행사가 되는 성분은 여러가지다. (19)에서 상위절내의 밑줄친 부분이 선행사로서 그 성분을 보면, a에서는 절(clause)이요, b에서는 형용사구요, c에서는 고유명사(N)이다.

그러나 (20a)에서 처럼 부정명사구(negative NP)나 every, each, all, any 등으로 양화된 명사구(quantified NP)가 선행사일 경우는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관계사 *who*의 지시대상(referent)이 없기 때문이다. 또 b에서는 고유명사는 제한적 관계절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㉒ 관계절 자체의 형태(form)에서 차이점을 찾아본다. 우선 관심사는 비제한적 관계절은 wh-부류

(wh-class)에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wh-부류 중에서도 why는 제한형에 한하여 사용되지만, who는 he와 she처럼 선행사가 동물일때도 손쉽게 적용된다.

(21) a. *Fido, who was barking again*

b.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is late.*

a에서 Fido는 동물이지만 who의 선행사이다. b에서 why로 시작되는 관계절은 비제한적 용법에는 나타나지 못한다.

더욱 더 중요한 차이는 비제한형에 있어 which는 머리어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정사(Det)로도 나타날 수 있다.

(22) *He may have seen her yesterday, in which case he will certainly have told her the news.*

(22)에서 which case의 의미는 the case where he did see her yesterday와 같다. 이러한 내용을 통사적으로 주절에서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응(anaphora)의 문제는 통사론의 문제라기 보다 의미론의 문제로 등장한다.

IV. 관계절의 유형론적인 대조

모든 언어가 제한적 관계절을 수식어로 사용한다. 이 관계절이 문장중에 나타나는 위치는 그 언어에서 문장중에 나타나는 동사와 그 목적어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수식을 받는 머리명사(head noun)을 중심으로 수식어는 왼편에 오거나 바른편에 온다. 그런데 이 수식어의 위치가 각 언어에서 보여주는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속성을 보여준다.

Downing(1978 : 384, 396)은 각 언어에서 문장에 나타나는 어순과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전·후 위치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언어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문장의 어순이 SVO 즉 넓은 범위의 VO인 언어에서 머리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위치를 보면 그 머리어를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후치된 관계절의 내면구조를 분류하면 아래 (23)과 같다.

- (23) 1. N[s...ϕ...] DYIRBAL
 2. N that [s...ϕ...] VIETNAMESE, HAUSA
 3. N that [s...PRO...] HEBREW, ARABIC, AKAN

4. N [s WH……] LATIN and derivatives
5. N that [s WH……] INDONESILAN, HUNGARIAN
6. N WH that [s…φ…]
7. N [s WH…PRO…]

위의 분류에서 유형 1과 4를 비교해 보면 보문소(Complementizer)가 없는 것은 같은 현상이지만 관계절 안에 1은 관계어(wh-words)가 없고 4는 있다. 또 2와 3을 비교해 보면 보문소의 출현은 같으나 관계절 안에서 전자는 관계어가 없는 대신 3은 PRO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이 유형중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2와 4가 병용될 뿐 아니라 관계어가 주어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는 1도 사용된다. 그러나 고대 및 중세 영어에서는 유형 6이 사용되었다. 즉 관계어(wh-words)와 보문소(that)가 동시에 나타난다.

동사-목적어(VO) 어순의 언어중에서 (23)의 여러 유형과는 달리 전위 수식을 하는 언어가 있다. 이 예외적인 언어중 하나는 Mandarin Chinese로서 그 기본 어순은 SVO인데 제한적 관계절이 머리어 앞에 위치한다. 반면에 Classical Tibetan, Hotentot, Quechua, Papago 및 Turkish등은 전치관계절과 후치 관계절이 둘 다 사용되는 언어이다.

그러나 여러 언어현상을 종합해 볼때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특정 언어의 기본어순이 VO일때는 제한관계절의 위치는 (23)처럼 머리어의 뒤에 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의 어순이 OV 즉 동사후치(verb-final) 언어에서 관계절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사후치 언어와 관계절을 포함한 여타 수식어의 위치와는 상호 관련이 있다. 즉 관계구문에서 관계절이 머리어 앞에 위치하는 언어는 주로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유형의 언어는 Navajo, Basque, Amharic, Japanese, Turkish 및 Korean 등이다. 동사후치의 언어중 관계절이 머리어뒤에 오는 예외로는 Persian이 있다.

머리어 앞에 관계절이 오는 언어에서 그 관계절의 내면구조와 그 구조에 해당되는 언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 |
|-----------------------|----------------|
| (24) 8. [s…φ…V-REL] N | NAVAJO, BASQUE |
| 9. [s…φ…REL-V] N | AMHARIC |
| 10. [s…(PRO)…V] N | JAPANESE |
| 11. [s…(PRO)…] that N | CHINESE |
| 12. [s…φ…V-PART] N | TURKISH |

머리어 앞에 관계절이 오는 (24)의 유형중에 VO 어순은 Chinese 하나이며 그외의 언어는 OV의 어순이다. 선행 관계절의 구조를 볼 때 머리어와 같은 의미의 관계 명사구(Rel NP)가 생략(φ)되었거나

PRO인 점과 절 말미에 동사의 접사 표지가 있는 것이 공통적인 속성이다. OV 어순을 가진 모든 언어에서는 관계절과 머리어 사이에 관계사(wh-words)로 분류할만한 독립된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관계절이 수식하는 머리어를 중심으로 관계절의 위치와 문장의 어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머리어와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내부구조를 보여준 (23)과 (24)에서 관계절을 모두 열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23)의 일곱 유형은 관계절이 머리어 뒤에 오며 문장의 어순이 VO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24)에 나열된 다섯 유형의 공통점은 관계절이 머리어 앞에 위치하며 문장의 어순이 OV이다. 다만 어순과 관계절 위치의 상관관계에 예외가 되는 것은 VO의 언어에서는 Mandarin Chinese이고 OV의 언어에서는 Persian이 있다.

Kim(1990 : 349)은 OV 언어와 VO 언어가 상호 대조되는 관계절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Turkish, Korean, 및 Japanese 등의 OV 언어에서는 관계절이 머리어 왼편에 오는 반면 Arabic, English, Italian 및 Tagalog 등의 VO 언어에서는 관계절이 머리어 뒤에 오는데 이 두 유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25) Verb	Complement
V	O
	NP [RC]
O	V
[RC] NP	

동사와 보문의 연속(strings)을 다시 쓰면 V-NP [RC]와 [RC] NP-V가 되는데 이 양자간의 공통점이 거울형상구성(mirror image configuration)이다.

언어의 유형론(typology)적 속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관계화 과정이 언어 상호간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타당한 과정이다. SOV의 언어로서 한국어와 SVO의 언어로서의 영어가 유형론적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Kim(1990 : 361)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관계절로 인해서 대조되는 여덟가지 특징(features)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주고 있다.

(26) Korean(SOV)	English(SVO)
1. prenominal	postnominal
2. RP deleted	retention/deletion
3. *	transformational rule
4. verb marking	*
5. restrictive only	restrictive/non-restrictive
6. predeterminal	postdeterminal
7. possessor rel.	*
8. double rel.	*

(26)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어 관계절에 필요한 몇몇 특징이 영어에는 없고 또 영어 관계절에 필요한 특징이 한국어에 없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4, 7, 8이 이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 3(transformational rule)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 규칙의 증거를 영어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영어에서는 동사의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규칙 하나만 가지고도 이 규칙의 타당성을 설명할만한 많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어순의 유형에 따라 각 유형의 언어가 갖는 특성의 차이를 관계절에서 찾아보았다. 이는 어순의 유형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간의 언어보편성을 체계있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관계절을 중심으로 SVO 언어와 SOV 언어의 보편성을 대조시켜 보았다. 즉 관계절의 특징에서 어순을 근거로 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기저의 원리를 유추해 낼 수 있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V.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

Downing(1978 : 377)은 여러가지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된 관계절 구조의 통사적 속성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 (27) a. A RC contains a finite verb.
 b. The verb of a RC assumes a distinctive nonfinite form.
 c. A RC contains a pronoun coreferential with a noun that immediately precedes(or follows) the RC.
 d. No nominal in the RC is coreferential with a preceding(or following) noun.
 e. A RC together with a nominal expression forms a noun phrase (NP) constituent.
 f. A RC is the sole constituent of a NP.
 g. A RC is not a constituent of a NP.
 h. A RC begins (or ends) with a distinctive marker.
 i. A RC contains a marker that is linked by cooccurrence with a nominal marker outside the clause.
 j. The internal structure of a RC is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some) nonrelative clauses.

위에 열거된 통사적 속성을 보면 속성 중에서 보편성을 찾기보다 다양한 속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좀더 추상적인 수준(abstract level)을 설정하면 공통점이 있으리라는 변형문법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표층 형태(surface form)를 설명하기위해 마련된 심층 구조가 적어도 관계절에

관한 언어간에 차이가 있다. 즉 통사적인 속성에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의미적 특성(semantic characterization)을 볼 때에 여러 언어에 공통점이 있다. Downing(1978 : 378)은 공통적인 의미의 특성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관계절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한다. 의미상으로 볼 때에 관계절 밖에 있는 명사구와 항상 연결된다. 영어에서 이런 현상을 보자.

(28) a. The car [I saw ____] was green.

b. I haven't found the boy who [I met ____]

위의 문장에 내포된 관계절만 보면 목적어가 없어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못된다.

두번째로 관계절은 선행사에 관한 진술이어야 한다. 이 관계절에서 주제(theme)로서의 관계화명사는 생략되어 관계절 자체는 불완전한 형태가 된다.

세번째로 관계절의 의미상의 속성은 수식어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특정된 관계절의 속성으로 형용사절 또는 제한적인 절로 지칭된다. 아래 예문중 a가 이에 해당된다.

(29) a. The children who have green tickets will be admitted free.

b. The children, who have green tickets, will be admitted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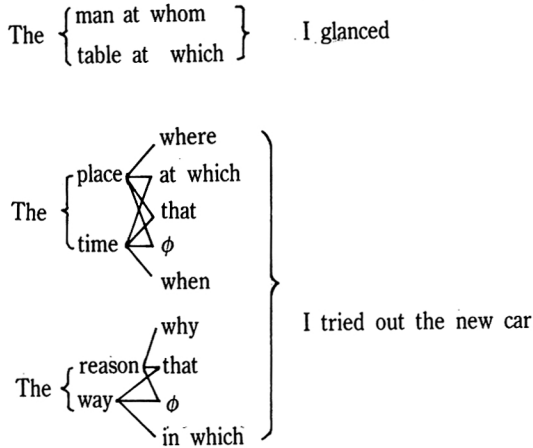
관계절의 의미적 속성 세가지를 보았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관계절 안과 밖에 있는 두 항(terms)의 상호지시(coreference), 관계절은 주제인 선행 명사구에 대한 주장이라는 개념 및 제한관계절과 선행사 사이에 유지되는 수식관계다.

앞으로 영어와 한국어에 한해서 통사적인 속성을 종합해보기로 한다. 먼저 영어의 통사적 속성을 정리해 본다.

Quirk et al(1972 : 867)는 제한적 관계절의 총체체계(total system)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놓았다.

(30)
$$\text{The } \left\{ \begin{array}{l} \text{man} \\ \text{table}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who} \\ \text{that} \\ \text{which} \end{array} \right. \text{ stay ed in the new hotel}$$

$$\text{The } \left\{ \begin{array}{l} \text{man} \\ \text{table}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who(m)} \\ \text{that} \\ \text{0} \\ \text{which}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I saw} \\ \text{I glanced at} \end{array} \right.$$



관계절이 머리어를 수식할 때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그 차이나는 기능을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제한적 용법(restrictive use)의 관계절에 국한해서 그 통사적 속성을 검토해 본다.

Baker(1989 : 234~248)는 제한관계절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 절의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에 따라 우선 세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앞 (11), (12), (13)에서 요약한바 있다. 이 예문의 수형을 보면 NP가 없는 표시로 S/NP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GPSG(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의 기호를 원용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예문을 보고 각 그룹의 특징을 보자.

- (31) a. The senators [who(m) Fred voted for] have resigned.
- b. The report [which Karen submitted] implicated several of her friends.
- c. The guy [whose dog you fed] has left town.
- d. The journalists [who exposed the fraud] are being s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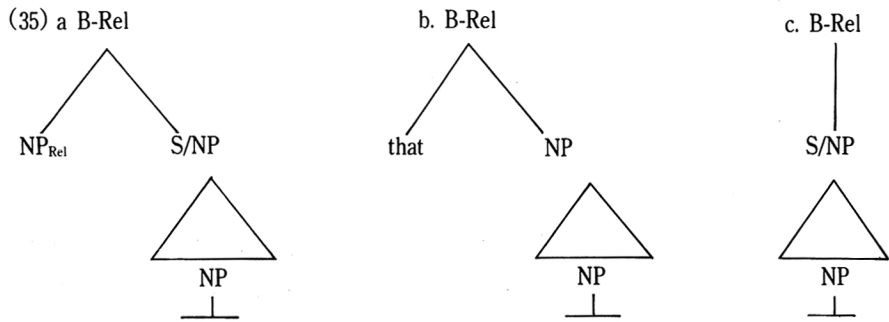
- (32) a. We read the article [that Smith recommended].
- b. The safe [that Henry keeps his money in] has been stolen.
- c. The people [that voted for Bill] dislike his policies.

- (33) a. The accident [Jason caused] will be investigated.
- b. The problem [you told us about] has been resolved.

위에 소개한 예문들이 모두 한정절(finite clause)이라는 속성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있다. 각 관계절의 내부 구조가 정상적인 문장에 비해 명사구가 하나씩 없는 셈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관계절의 그룹별 속성을 요약하고 그 특성을 수형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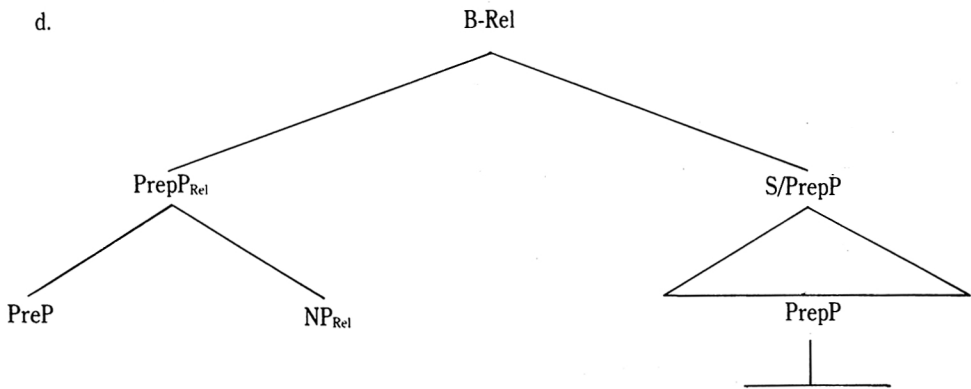
- (34) • a relative noun phrase followed by a finite sentence with a missing noun phrase
- the word *that*, followed by a finite sentence with a missing noun phrase
- a finite sentence with a missing noun phrase.



위에서 없어진 명사구(the missing noun phrase)는 관계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소유명사구등의 기능을 하고있다. (35)에서 관계절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성은 없어진 NP가 있다는 것이다. (a-c) 모두가 S/NP로서 NP가 부족한 S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없어진 성분이 NP가 아닌 다른 성분도 있다.

전치사구로 시작되는 관계절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전치사구를 뒤따르는 한정관계절의 내부에 전치사구가 없으며 이러한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이다.

- (36) a. The official [*to whom* Smith loaned the money] has been indicted
- b. Martha's sister is the person [*on whom* Fred depends].
- c. The man [*on whose lap* the puppet is stting] is a ventriloquist.
-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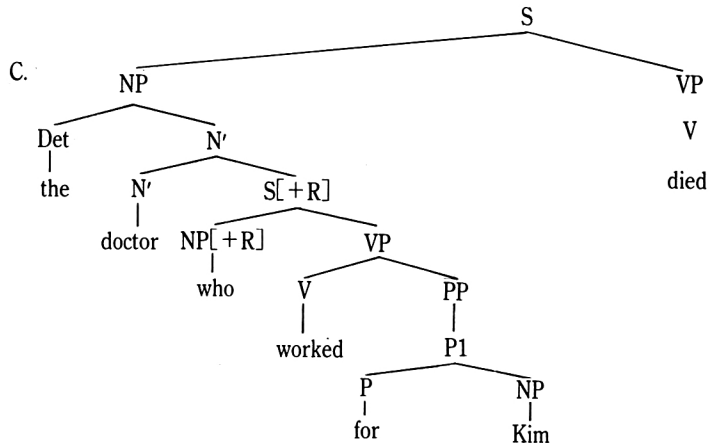
Gazdar et al(1985 : 155)는 관계절의 ID 규칙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41) $N' \rightarrow H, S[+S]$

(42) a. $S \rightarrow X^2, H[-SUBJ]$
 b. $S \rightarrow X^2, H/X^2$

(41)에서 H는 관계절이 수식하는 머리에 해당되며 $S[+R]$ 은 관계절로서 머리어 뒤에 온다는 뜻이다. 다음 (43)은 없어진 성분이 NP, PP, AP등이 될 수 있다는 규칙이다. 또 수형 C가 보여주듯이 이 틀에서는 관계어가 주어인 경우는 공백이 없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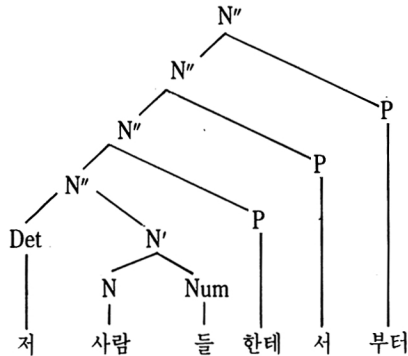
(43) a. $S[+R]$
 NP[+R]
 VP
 b. i. $S[+R]$
 NP[+R]
 S/NP
 ii $S[+R]$
 PP[+R]
 S/PP
 iii $S[+R]$
 AP[+R]
 S/AP



한국어의 관계절 구조 규칙을 검토해 보자. 먼저 NP의 구조를 한 재현(1983 : 51)은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44) a. $N'' \rightarrow N''P$
 b. $N'' \rightarrow Det N'$
 c. $N'' \rightarrow N Num$

- (45) a. 저 사람들한테서부터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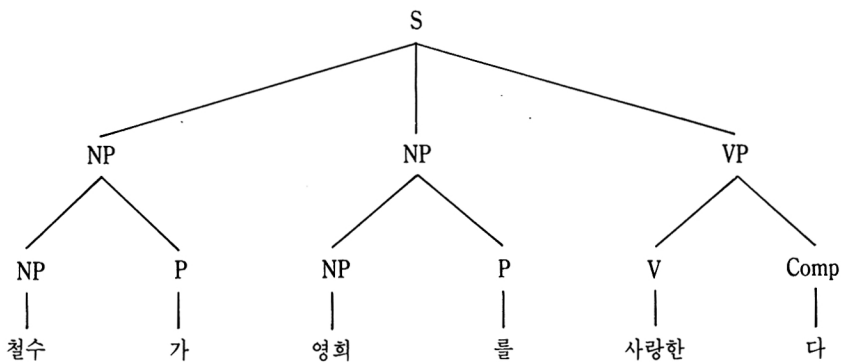


이러한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위치는 영어와는 달리 머리어 앞에 온다. 한국어의 관계절에는 공백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한 재현(1987: 19)의 예문을 추가로 뒤에 소개한다.

(45)의 규칙은 관계절 자질을 가진 문장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동변형을 설정하지 않는 GPSG 틀에서 볼때에 관계어가 내면주어인 경우 a에서 처럼 없어진 성분이 없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b의 경우에는 없어진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성분으로는 NP, PP, AP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영어에는 AP가 없어진 성분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c의 수형은 없어진 성분이 없는 관계절을 내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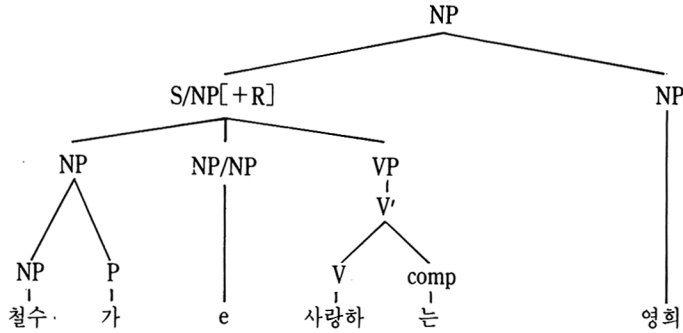
그런데 국어의 관계절은 (c)와 같이 없어진 성분(missing constituent)이 없고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다음 예문을 검토해 보자.

- (46) a. 철수가 영화를 사랑한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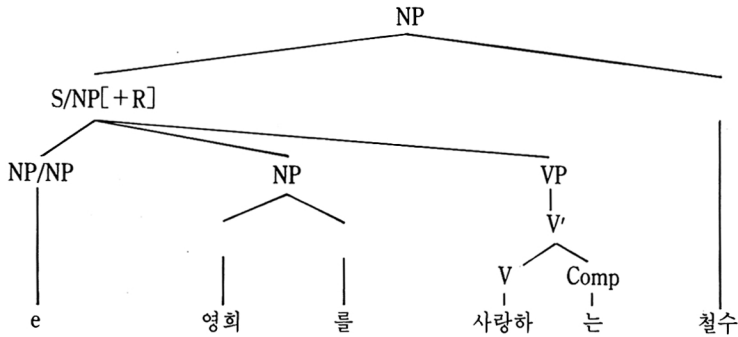
(47) a. 철수가 사랑하는 영화

b.



(48) a. 영화를 사랑하는 철수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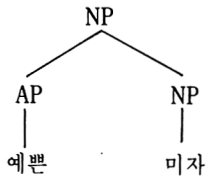


(46)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 구성된 완전한 문장이다. 이 문장의 목적어를 관계절의 머리어로 하는 구조가 (47)의 수형이요, 주어를 머리어로 하는 구조가 (48)의 수형이다. 관계절이 없어진 성분을 필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어의 경우 GPSG틀로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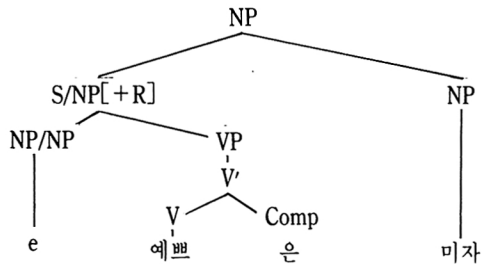
관계절 구조와 관련해서 한국어에서 전통적으로 형용사로 분류되어 온 품사를 동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를 한재현(1987: 94)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9) a. 예쁜 미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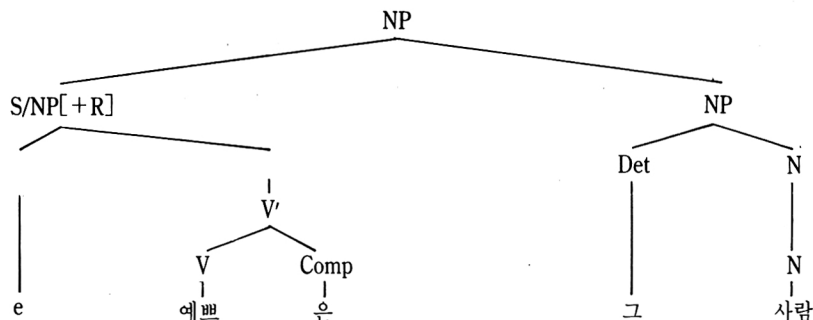


c.



(50) a. 예쁜 그 사람

b.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를 가진 NP인 (49a)의 구조를 b처럼 단순한 형용사로 분석할 수도 있고 c처럼 관계절의 구조로 분석할 수도 있다. (49a)와 같은 표현에서는 b나 c의 어느 것을 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50a)의 표현에서 수식어를 형용사로 분석할 때 그 구조는 NP → Adj, Det N이 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NP → Det Adj N과 어순의 대치현상이 된다. 그러나 이 수식의 표현을 관계절로 분석하면 (50b)처럼 체계있는 분석이 된다.

형용사의 범주를 동사로 포함시키고 명사구 앞에 오는 수식어를 관계절로 분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시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

(51) a. 예뻐던 미자

b. 예뻐질 미자

위의 a는 지금은 미자가 예쁘지 미운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예뻐다는 의미이다. 즉 '예뻐던'이 과거를 가리키고 있다. 만일 이를 형용사로 분류한다면 형용사가 시제를 갖는 품사가 된다는 잘못된 주장이 된다. 그러나 관계절로 분석하면 문장이 시제를 갖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이 된다. b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있으므로 관계절로 분석하면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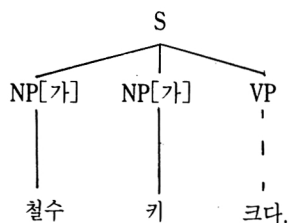
관계절의 구조로 주어나 목적어가 두개 있는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52) a. 철수가 키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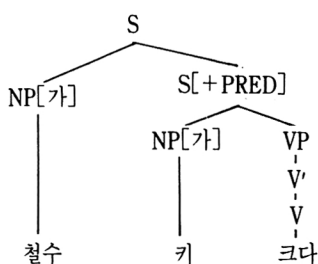
b. 키가 큰 철수

c. *철수가 큰 키

d.



e.



(52 a)의 내면구조를 d로 설정할때 관계절화한 구조중 b는 좋은 문장이고 c는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면구조를 e로 설정하면 c가 비문인 이유를 [+PRED]의 속성을 가진 문장 속에 있는 NP가 없어진 성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타당한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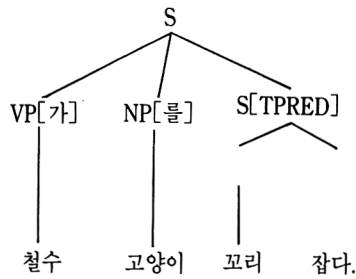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중 목적어가 출현하는 문장이 관계절의 기능을 할 때를 살펴보자.

(53) a. 철수가 고양이를 꼬리를 잡았다.

b. 철수가 꼬리를 잡은 고양이

c. *철수가 고양이를 잡은 꼬리

d.



(53)에서도 c가 비문이 된 것은 이중으로 출현한 목적어 중에서 뒤에 오는 목적어가 머리어와 같은 지칭이기 때문이다. 즉 이 성분은 [+PRED]의 문장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문장구조를 d로 설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어를 비구성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로 간주하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중 주어나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후자인 주어나 목적어는 상위문장의 직접성분이라기 보다 [+PRED]의 자질을 가진 문장의 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54) a. 한국어의 관계절은 없어진 성분(missing constituent)을 필수적으로 내포한다.

b. 이중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둘중 뒤에 오는 주어나 목적어는 [+PRED]의 자질을 갖는 내포문의 성분이다.

c. 수식 형용사가 있는 구조도 관계절이다.

VI. 결 론

모든 자연언어가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식구절중에서 관계절의 구조와 기능을 이 논문에서 설명했다.

수식을 받는 머리어와 수식하는 관계절 사이에서 관계절이 차지하는 전·후의 위치가 그 언어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논문을 요약했다. 일반적으로 VO어순의 언어에서 관계절은 머리어 뒤에 오고, OV 언어에서는 머리어 앞에 오는 현상을 소개했다. VO 언어중의 하나인 영어와 OV 언어인 한국어에서 관계절과 머리어의 분포는 서로 거울형상구성(mirror image configuration)현상임을 보았다.

한국어 관계절의 통사구조를 GPSG 틀 안에서 분석한 결과 종래 형사로 분류되던 품사를 술어 즉 동사로 서술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했다.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분류되어 수식의 기능을 하는 성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하는 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도 수식어를 관계절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국어 관계절의 구조와 기능을 정리한 것이 앞서 기술한 (50)이다.

참 고 문 헌

- 양동휘(1987) 관계화. 영문법 개론II, 신아사. 서울.
- 한재현(1987) 형용사구 구문연구. 숭실대학 논문집(인문과학편 17집).
- Baker, C.(1989) English Synfax.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Bears, J.(1982) Gaps as Syntactic Features. IULC. Bloomington, Indiana.
- Curm, G. O(1931) Syntax. D.C. Heath and Company, Boston.
- Downing, B. T.(1978) "Some Universals of Relative Clause Structure,"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375~418.
- Gazdar, G., E. Klein, G. Pullum, and I. Sag(1985). *The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Huddleston, R.(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New York.
- Kim, I. S.(1990)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English Relative Clause," *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15, 347~364.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Seminar Press, New York and London.